

한국투자증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혁신금융



특히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한가지 고지항목만 충족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만성질환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1형 3대 질병 보장형은 최근 5년 이내 암, 제자리암, 간 경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고, 암·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2형 2대 질병 보장형은 최근 5년 이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심장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은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과 동일하게 1형 3대 질병 보장형과 2형 2대 질병 보장형으로 구성됐다. 충족해야 할 고지항목이 세 가지인 대신 보험료가 1형의 경우 최대 14%, 2형의 경우 최대 18% 더 저렴하다. 또 이 상품의 2종 일반심사형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 등 일반적인 건강보험 심사과정을 거치는 대신 보험료가 1종 간편 심사형보다도 더 저렴하다.

40세 남성과 40세 여성이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 20년 만기 전기납으로 1형 3대 질병 보장형에 가입했을 경우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과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1종 간편 심사형의 주계약 월납입보험료는 각각 1만6천100원과 1만400원, 1만4천300원과 9천200원이다.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병력이 전혀 없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의 2종 일반심사형으로 가입하면 매월 남성은 9천300원, 여성은 6천원의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암 수술, 암 직접 치료 입원, 요양병원 암 입원, 소액 암 진단, 3대 질병 재진단 등에 대한 추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80세까지며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보험료 차등을 두는 대신 표준체부터 고령자, 유 병력자까지 보험에 가입해 미래 중대 질병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상품 2종을 선보였다”며 “많은 고객께서 이번 상품을 통해 유병 장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❶

ABL생명은 한 가지 혹은 세 가지 고지항목 질문만 충족하면 간편하게 가입해 중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과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등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상품 2종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자나 유병자도 몇 가지 고지항목만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해 중대 질병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